



12면

'시민이 행복한 경제, 스마트 의회' 구현 주력

전주매일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음 12월 7일)

제36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 전북이 주도'

도, 2036 하계올림픽 본격 유치전 돌입...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 등 4개 시군 5개 시설 평가단 방문 실사

"또 서울입니까? 127년 만의 올림픽 구호변경 다 함께 (Together). 더 많은 국민이 올림픽의 감동을 함께할 수 있게, 더 많은 도시가 올림픽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게, 전북이 올림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 함께 해야 해낼 수 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가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북에서 진행된다. 전주는 서울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전북민의 차별화된 지방도시 연대, K-컬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평가단에 선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경기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민간의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사는 전주, 군산, 무주, 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5개 주요시설을 방문해 올림픽 개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강점을 검토하는 자리다.

평가단은 사전 브리핑을 시작으로 △철인3종, 마라톤수영, 조정/카누, 비치발리볼 등 수상·해양종목이 예정된 새만금 일대(비치 스포츠 콤플렉스) △축구·농구·배구 경기 등이 개최되는 전주와 완주(아반 스포츠 콤플렉스) △태권도, 펜싱, 산악자전거 경기장 개최되는 무주(밸리 스포츠 콤플렉스)를 실사한다. 각 시설의 인프라 등이 평가의 주요 항목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유치에 나설 수



하계올림픽 현장평가 대응 리허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가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북에서 진행 될 예정인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3일 군산 리마다호텔 및 새만금33센터에서 2036 하계올림픽 현장평가 대응 리허설을 갖고 있다.

있었던 데에는 IOC가 원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요했다. IOC는 지난 2014년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발표하며 미래유치위원회를 도입하고 나리간, 도시간 공동개최를 허용했다. 기존 시설 활용하고 분산 개최 및 지역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가능한 다목적 신설 경기장 및 친환경 일

시 경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 광주, 전남, 고령, 충북 청주, 충남 등 다른 지역과 협력하며, RE100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또한 전통 문화와 K-컬처를 결합해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1위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대회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옥과 관소리, 비빔밥 등 K-컬처의 뿌

리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등 문화와 전통을 강조한 문화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올림픽 개최 도전은 스포츠 행사 개최를 넘어서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균형발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아우르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社告



제11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25년 1월 9일(목)부터 1월 10일(금)까지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제11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대회(전주매일신문 주최, 전북스키협회 주관)을 오는 9일(개회식 및 초청음악회)부터 10일(경기진행)까지 진행합니다.

스키와 스노보드 12개 부문 우승자는 ▲트로피와 상장 시상품 ▲입상자는 상장과 시상품 ▲참가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모든 참가자는 9일 만선하우스 2층 카페테리아 행사장에서 개회식(오후 5시 ~ 5시 30분) 및 초청음악회(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그리고 식권지급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가문의는 전주매일신문 총무부(063-288-970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참가안내 ◆

▲ 참가비 계좌: 농협 351-0125-0306-43[예금주: 일간전주(전주매일)]

▲ 참가비: 대학 일반부 - △리프트 속스미이용시 1만원

△리프트만 이용시 5만원

△리프트 속스미 이용시 10만원

학생부 - △리프트 속스미이용시 1만원

△리프트만 이용시 4만원

△리프트 속스미 이용시 8만원

**숙박은 1월 9일이며, 리프트권은 1월 10일입니다.

**참가하실분은 △이름 △상선월일 △연락처 △스키 및 보드 구분 △성별표시 △초등부·중고등부·대학 일반부 표시 △등록구분(속스, 리프트권 이용여부) 바랍니다.

전주매일신문사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

도, 11일 오후 6시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애도 분위기 조성
익산시도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도 합동분향소 연장키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추모의 물결이 전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4일)을 넘어 오는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은 총 3,675명으로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한 것이다.

전북자치도에서는 합동분향소 운영에서 나아가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조문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향소 운

영 기간 동안 꾸준히 제공한다.

최영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이번 참사로 슬픔에 잠긴 모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에서도 국가 애도 기간 이후 '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익산시는 시청 1층에 마련된 '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4일 밝혔다.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이 시간 외에도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운영을 시작한 익산시 합동분향소에는 지금까지 시민 1,000여 명의 발길이 닿았다. 특히 새해를 맞는 1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이웃의 아픔에 함께했다. /이만호 기자

도,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 지방세 감면 지원

지난해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여객기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유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사망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며, 덧붙여 유족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공제

-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 답례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만원까지

기부 방법 (2023.1.1~)

-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기부: 지역특산물 구입

기부자 -> 지자체 -> 지역생신자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공급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kakao 채널 완주고향사랑

완주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063-290-2391 ~ 2392